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실의 감각적 경험을 통한  
심리적 풍경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소 영

실의 감각적 경험을 통한  
심리적 풍경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정 정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소 영

# 인 준 서

김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본인의 유년시절 실을 가지고 놀며 신체로 느꼈던 촉감이나 실의 이미지 같은 외적인 감각과 실을 통해 얻었던 안정된 정서와 분위기와 같은 내적감각들이 현재의 본인이 마주하는 자연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각을 만들어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행 되었다.

본인의 과거경험을 통해 느꼈던 날씨가 냄새, 소리, 분위기가 현재의 환경과 비슷할 때 과거에 경험된 감각들이 연상된다. 동시에 현재 경험하는 감각과 결합된 새로운 감각의 형태로 재구성 된다. 이것은 경험에서부터 축적되어진 감각의 기억들이 현재의 감각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감각의 형태로 재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인은 과거 경험된 감각과 이러한 감각의 연상들이 현재의 감각과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각의 형태들을 바탕으로 자연이라는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작품으로 표현되었는지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석사학위 과정 중 작업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을 제시 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감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외적감각을 통한 내적감각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형성배경을 밝혔다. 또한 자연풍경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 계기와 배경을 힐데브란트의 시각론과 조지 버클리 및 헤겔의 공간 지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서술하였다. 둘째, 작품표현방법에서는 감각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된 바느질과 무채색을 통한 공감각적 심상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 되었고, 놀이행위를 통한 촉각적인 설치구성을 통해 관객과 작품으로 어떠한 소통을 하고자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8점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 작업의 방향성과 새롭게 시도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외적감각을 통한 내적감각의 경험 .....	3
2) 시각과 촉각의 상호작용 통한 자연풍경의 심리적 안정감 .....	4
2. 작품표현방법 .....	7
1) 바느질을 통한 감각표현 .....	7
2) 무채색을 통한 공감각적 심상표현 .....	8
3) 놀이행위의 촉각적인 설치 .....	9
3. 작품분석 .....	12
III. 결 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I. 계산동 936-6 II. 감각놀이 III. 1995-2016 IV. 담다,  
디지털프린트, 60x60cm, 2016 ..... 12
- 【작품 2】 물레, 캔버스에 바느질, 가변크기, 2016 ..... 15
- 【작품 3】 시선의 기록, 캔버스에 바느질, 아크릴 채색, 160x30cm, 2016 ..... 18
- 【작품 4】 間, 캔버스에 바느질, 아크릴 채색, 116x90cm, 2016 ..... 21
- 【작품 5】 고요히 피어오르던, 캔버스에 바느질, 아크릴 채색, 120x90cm,  
2016 ..... 23
- 【작품 6】 검은 바다, 캔버스에 바느질, 아크릴 채색, 160x120cm, 2015 ..... 25
- 【작품 7】 빛, 공간 그리고 시선, 캔버스 와구, 린넨 천, 아크릴, 면사, 가변크기,  
2016 ..... 28
- 【작품 8】 촉각놀이, 실 커튼, 염색 실, 420x280x15cm, 2016 ..... 31

## I. 서 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중 신체에 특정되게 자극되어진 감각의 경험들은 우리의 뇌에 오래도록 지각된다. 이러한 감각의 경험은 비슷한 환경에서 다시 자극되었을 때 과거의 감각들을 연상시키며 현재의 감각과 결합해 새로운 감각의 형태로 재구성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들은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Hegel, 1770~1831)이 분류한 오감과 같이 신체를 자극하여 내화되는 외적감각과 감성, 분위기, 회상 같은 정신적인 내적감각이다. 이러한 감각의 영역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현재 본인에게 가장 많이 지각되는 외적감각들은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 풍경과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이리저리 몸에 치이는 군중들이다. 이러한 외적감각을 통한 도시에서의 본인의 불안정한 심리적 내적감각은 점점 증폭되기 시작했다. 안정된 시선과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 본인의 모습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연이라는 공간을 찾게 되었다. 특히 원거리에서 바라본 평온한 자연의 선들은 도시공간과 다르게 본인에게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안정된 정서와 감각을 연상시켜 주었다. 이러한 감각의 연상은 실과 관련된 감각의 기억이다. 실을 통해 얻었던 선의 이미지에 대한 편안했던 내적감각들이 자연풍경안에서 선등성이나 가지런히 나열되어 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연상되고 자연 안에서 새롭게 자극된 감각들과 상호작용하여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감수성까지도 극대화 시켜 주게 된 것이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감각의 기억을 토대로 본인이 가장 감각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이라는 오브제와 본인만의 정서를 담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해

얻어진 감각의 경험들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작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하였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Hegel, 1770~1831)의 감각의 분류표를 통해 감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외적감각을 통한 내적감각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형성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자연풍경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 계기와 배경을 아돌프 폰 힐데브란트의 시각론 및 조지 버클리 및 헤겔의 공간지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표현방법에서는 바느질을 사용한 감각표현과 무채색 통한 공감각적 정서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본인의 유년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놀이행위를 통한 촉각적인 설치구성을 통해 작가가 관객과 어떠한 소통을 하고자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작품표현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8점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외적감각을 통한 내적감각의 경험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Hegel, 1770~1831)의 『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에 기술되어 있는 감각의 분류표에는 신체성의 규정이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과 같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감각되어지는 외적감각과 정서, 감성, 기분과 같이 정신으로부터 생겨나고 신체화 되어 감각 되는 내적감각으로 나뉜다.<sup>1)</sup>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감각들의 영역은 신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우리의 뇌에 지각되고 개인의 심리적 체험까지 경험하게 해주는데 과거의 특정한 경험이 현재에서 비슷한 환경으로 신체에 자극되어지면 그 때를 회상하기도 하고 그 날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정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손과 눈으로 하는 실뜨기<sup>2)</sup> 놀이를 예로 들면, 어린 시절 실뜨기란 놀이방법에 관해 누가 가르쳐주었는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의 피부로 느껴졌던 실의 감촉이나 놀이를 하며 즐거웠던 심리적 상황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다가 어른으로 성장한 후 어린아이에게 다시금 가르쳐줄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거에 놀이를 통해 경험했던 감각을 현재의 상황을 바

1) 1) 헤겔(Hegel, 1770~1831)의 감각의 분류표 :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의 『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401절(「보론」도 포함)에는 감각의 영역을 신체성의 규정이자 내화되어 감각으로 되는 외적 감각과, 정신으로부터 생겨나고 신체화 되어 감각으로 되는 내적 감각으로 분류 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헤겔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6440&cid=41908&categoryId=41971>)

2) 실뜨기 : 실의 양 끝을 두 손에 걸고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며 즐기는 놀이. 네이버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136&cid=46670&categoryId=46670> )

라보는 시선과 손으로 느끼는 촉감을 통해 떠올리며 동심이라는 그때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분을 심리적으로 다시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 시절의 만화주제곡을 다시 들었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과 비슷한 맛의 음식을 먹었을 때,’ ‘4계절이 돌아 차가운 겨울 냄새를 맡았을 때’ 등 신체에 물리적으로 자극 된 외적감각을 통해 과거의 심리적인 내적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본인 또한 과거 실에 관한 감촉과 시각적인 인상이 현재의 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정서적 표현방법의 배경이 되었다. 손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실의 촉감은 다루기에도,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어린 시절 놀이를 하듯 즐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 2) 시각과 촉각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풍경의 심리적 안정감

삭막한 도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틈틈이 자연이라는 공간을 찾아 휴식하기를 갈망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구조만큼 우리의 두 눈은 그 구조에 맞게 시선을 두고 맞춰가며 쉽게 피로를 얻곤 한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신체와 정신의 강한 자극의 연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정신적 안정상태가 깨지고 불안감을 갖는다.<sup>3)</sup> 그런 우리들은 업무시간 이외에 점심시간 같은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인공적이지만 가까운 자연공원을 찾아 물이 흐르는 호수나 하천을 바라보며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달랜다. 오래도록 축적 된 피로는 휴일이나 휴가 같은 때에 눈에 거슬림 없는 탁 트인 자연을 찾아 힐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푸르른 자연의 색을 보기위해 자연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맑은 공기에 시원한 바람을 맡기 위해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경우에는 자연이라는 공간

---

3) 유범희,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더 숲, 2016, p.43.

안에서 선으로 느껴지는 고요하고 편안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자연을 찾는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은 본인의 시선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수평선, 지평선, 산등성이 같은 원거리에서 바라봐지는 자연의 선에 시선을 두며 자연을 느끼다 보면 비로소 피부로 자연을 느끼게 되고 공간의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대상과 공간을 느끼기 위한 본인의 시선은 독일의 조각가이자 미학자인 아돌프 폰 힐데브란트(Adolf von Hildebrand)의 시각론에서 순수시각과 동적시각으로 분류 되어 이렇게 명시 되었다. ‘순수시각은 신체가 특정한 원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눈과 신체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눈이 평행을 이루고 이차원의 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반면 동적시각은 대상을 근거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상을 한눈에 보지 못하고 눈의 운동이 필요하게 되어 시각적 인상이 덜 명료해 진다.’<sup>4)</sup> 아마도 그에게 명료함이라 함은 예술의 지각에 있어 가장 큰 가치라 생각했기에 원시에서 바라본 시각적 인상이 근시보다 우월 하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다.

이러 원거리에서 바라본 자연 풍경의 시각적인 안정감은 본인의 촉각과 상호 작용하여 피부로 와 닿게 되는데 산세 사이로 흐르는 산안개나 물위로 흐르는 물안개는 자연이라는 대상과 본인과의 안정된 거리감을 두며 편안한 심상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촉각의 역할은 시각과 연계되어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선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sup>5)</sup>는 촉각을 시각과 연계하면서 '촉각이 없다면 물질성, 공간적 거리나 깊이를 시각적으로

---

4) 서보람, 「질 들뢰즈의 감각론을 통한 촉지적 공간의 감성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35.

5)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 영국의 철학자이자 성직자.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1709년 발표한 《새로운 시각 이론에 관한 시론(An Essay Towards a New Theory of Vision)》으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EB%B2%84%ED%81%B4%EB%A6%AC](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EB%B2%84%ED%81%B4%EB%A6%AC))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sup>6)</sup> 시각을 통해 촉각을 느끼고 물질과 대상의 충돌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 1770~1831) 또한 버클리와의 의견을 같이하여 “무게와 저항의 힘을 느끼며 삼차원의 형태를 감각하여 공간의 거리와 깊이를 이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감각이 촉각” 이라고 주장하면서 촉각의 가치를 강조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본인의 시선을 통해 경험된 자연풍경의 선은 물리적인 촉감과 상호작용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때의 시점과 자연풍경 대상간의 거리는 공간의 깊이를 만들며 버클리가 언급한 촉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은 작품에서 실제로 관객들이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으로 경험하는 깊이와 촉각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한 본인의 실과 관련된 내적감각과 외적감각인 풍경을 연결시키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강화한다.

---

6) 서보람, 『질 들뢰즈의 감각론을 통한 촉지적 공간의 감성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24.

7) 위 논문, p.24.

## 2. 작품표현방법

### 1) 바느질을 통한 감각표현

본인에게 실은 유년시절 가장 많이 보고 만지며 경험했던 놀이의 소재이다. 특히 실을 선의 형태와 포근했던 촉감으로 기억한다. 뿌연 먼지 사이로 보이던 부모님의 모습과 실공장의 공간은 실을 물레에 감고 풀어내는 반복적인 행위가 담긴 감각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유년시절 이후 성장과정동안 선적인 이미지들의 사물을 접할 때면 우선적으로 시선을 두게 되고, 본능적인 욕구처럼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다. 물론 손으로 다루졌을 때의 실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은 익숙하고 편안했다.

이러한 익숙한 경험들을 통해 얻어진 실의 감각적 잔상들은 자연풍경안에서 또 하나의 감각형태인 선과 편안한 감성으로 나타났다. 산등성이 선을 따라 줄지어진 나무들과 중첩된 산세 사이로 또렷하게 들어나는 산줄기, 수면 위에 그림자가 만들어낸 하늘과의 경계선이 주는 편안함이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얻은 기억 속 감각의 형태를 선이라는 물리적 근거로 기록하기 위해 본인의 감각과 감성의 온기가 고스란히 새겨질 수 있는 손바느질이라는 주된 표현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시선의 기록], [고요히 피어오르던] 이란 두 작품은 물가가 있는 자연풍경이다. 장소는 다르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며 물 위로 비춰지는 자연풍경의 모습과 하늘과 수면의 경계 짓는 수평선은 본인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시각적 인상을 주었다. 이렇게 자연에서 보여지는 수직과 수평 방향의 선들은 중첩된 바느질을 통해 작품에 표현 된다. 또한 본인의 몸을 감싸던 자연의 온도와 분위기는 실의 포근했던 촉감의 기억을 연상시키며 [間] 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수직의 방향으로 반복된 바느질 표현은 실의

두께감이 주는 포근함뿐만 아니라 실과 실의 사이로 중첩되어 산세를 구분 짓는 산등성이나 산세 사이로 흐르는 안개로 표현되어 대상과 본인의 거리를 가늠케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공간감으로 표현되었다.

## 2) 무채색을 통한 공감각적 심상표현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Sigmund Freud) 는 인간의 정서발달단계에서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 인간 일생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sup>8)</sup>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일생에 특정한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정서발달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인 감수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인은 감수성과 관련하여 유년시절의 가정환경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하루의 시간을 오롯이 보내야했던 어두운 지하 실공장, 빗소리에 마음 편해졌던 날들, 일주일에 반 이상은 안개사이로 숨박꼭질 하듯 다녔던 아침 등갯길 등 이러한 일상의 경험으로 자극되어진 색채의 감각은 본인에게 무채색을 통해 안정감을 갖는 정서를 만들어 냈고, 무채색을 통한 정서적 기억은 과거의 정서적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활성화 되어<sup>9)</sup> 본인의 작품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대부분의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게, 빨가면 사과처럼 이미지를 보고 색을 떠올리거나 색을 보며 맛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기억을 회상 한다. ‘하나의 감각 자극이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인 공감각’<sup>10)</sup>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자주 지각되는 공감각은 색을 통한 다른 감각

---

8) 정서의 발달단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3332&cid=40942&categoryId=31531>)

9) 유범희,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더 숲, 2016, p.62.

10) 유혜영, 「색채의 공감각의 의한 색채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2.

들의 연상이다. 어린 시절 지하 실공장은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나의 부모님이 계신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뿌연 안개 속을 헤치며 다녔던 아침 등굣길은 꿈을 꾸는 공간처럼 친구와 장난치며 거닐던 흥미로운 시간들 이었다. 이렇게 어둡고 흐릿한 무채색 환경이 만들어준 감각의 기억은 따뜻하고 흥미로운 과거의 감각과 공간으로 연결 지어주며 본인만의 무채색 감성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무채색 경험은 본인이 자연은 색의 감각으로 공간을 지각하고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다.

본 논문에 연구 된 작품들 또한 앞서 설명 된 무채색 경험이 만들어낸 본인의 정서적 태도가 반영된 작품들이다. [검은 바다]의 작품을 예로 바다를 찾거나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른바다나 노을이 지는 붉은바다를 연상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에게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주는 바다의 모습은 파랗거나 붉은색의 바다가 아닌 해가 지고 난 뒤 무채색의 밤바다이다. 그래서 늘 해가 진 밤바다를 찾는다. 암흑의 공간이 아닌 등대의 불빛과 하늘의 달빛, 고기잡이배들이 비추는 등불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무채색은 바다위의 물안개와 희미한 수평선을 비춰주며 본인의 안정된 정서를 극대화시켜 주었다.

### 3) 놀이행위의 촉각적인 설치

‘프뢰벨 (Friedrich Wilhelm August Frobel)은 아이들은 자기활동인 놀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신장시키며, 놀이도구는 그 중요한 매체’<sup>11)</sup>라고 주장 한다. 이렇게 하루일과 중 놀이활동이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규칙이나 규범이 적은 놀이행위는 불만과 욕구를 스스로 해소시키며, 놀이를 통한 협동심으로 사회성과

---

11) 독일의 교육가이며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뢰벨은 1840년 유아용 놀이도구, 작업구의 제조시설, 놀이도구, 작업도구를 사용해서 놀 수 있는 보육시설 보육자 양성시설을 통합해서 일반 독일유치원(Del Allgenmeine Kindergarten)이라 했다. 이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원류이다. 주요 저서에는 ‘인간의 교육’(Menahenziehung,1826)이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3983&cid=42120&categoryId=42120>)

창의성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인의 어린 시절인 9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TV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게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꿉장난’을 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실뜨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sup>12)</sup> 같은 신체의 감각기관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감각을 발달 시켜 왔다.

이러한 놀이행위를 통해 습득한 자유로운 창의력과 감각의 발달은 ‘예술가가 지닌 창조성의 원천을 아이의 놀이에서 찾아야 한다’<sup>13)</sup>고 했던 프로이트의 말과 같이 현재 작품을 창작하는 본인에게 작품의 주제나 재료 선택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폭 넓은 사고를 갖게 해주었다. 이런 사고의 행위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 아닌 놀이와 같은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과거 실을 가지고 놀며 감각 되었던 경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작품에 주된 표현매체로 사용되게 되는데, 그 중 촉각의 기억을 가지고 작업한 [촉각놀이] 라는 작품은 본인이 촉각을 놀이로써 학습하고 발달 하였던 유년시절의 감각기억을 확장시켜 제작한 작품이다. 유년시절의 놀이형태를 재현하기 위한 가벼운 설치방법과 더불어 작품에 쓰이는 오브제나 완성된 작품의 형상 또한 본인의 감각경험을 통해 지각되어진 것들로 구성하였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 본인이 촉감을 감각하였던 실로 배경을 설치한 후 과거의 편안한 감각들을 연상시키는 자연풍경의 형상을 가위로 재단하였다. 그 옆에는 관객들의 놀이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놓여지고, 그들에게는 관람에 관한 어떠한 규칙도 제한도 주지 않는다. 관객들은 서로 행동을 주시하며 손으로 실을 집어 들고 그들이 선택한 실 끝에 매듭 지어 진다. 완성 된 작품은 각자의 기억과 경험이 표현된 자연풍경의 이미지일 것이고, 본인에게는 유년시절 놀이

---

12) 소꿉장난 : 어린이들이 장난감 그릇이나 기구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즐기는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다가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는 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13) 유범희,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더 숲, 2016, p.135.

를 통해 얻었던 편안하고 따뜻한 촉감의 기억을 확장 시킨 공간이었다. 이렇게 작품을 통한 감각의 체험은 전시장에서 작품을 그저 바라만 봤던 관객들이 관조적인 태도를 벗어나고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작가의 경험을 신체와 정신으로 체험 하며 작품으로 소통하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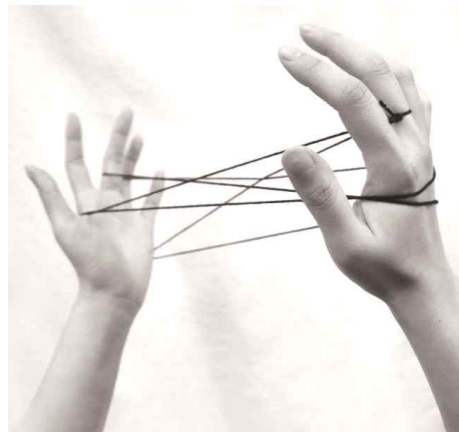
---

14) 이정희, 「놀이, 참여, 소통으로서 설치미술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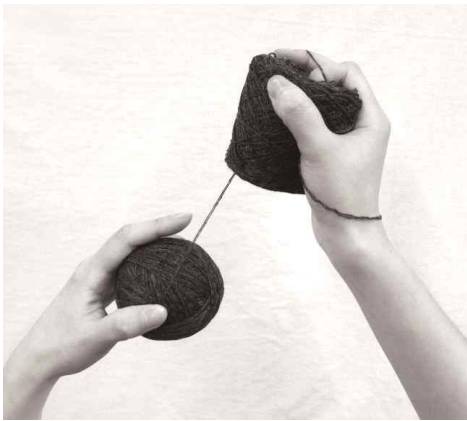
### 3.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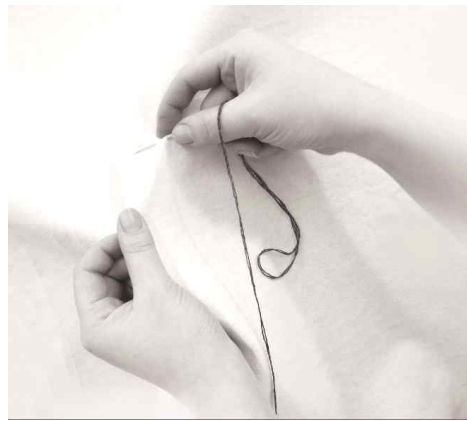
a



b



c



d

【작품 1】 a. 계산동 936-6    b. 감각놀이  
c. 1995-2016    d. 담다

【작품 1】 I. 계산동 936-6 II. 감각놀이 III. 1995-2016 IV. 답다

연도 : 2016

크기 : 60 x 60(cm) \_ 4개

재료 : 디지털프린트

제작방법

a. 계산동 936-6

1. 검은 천을 벽에 고정시켜 배경을 설치한다.
2. 암흑의 공간 안에서 조명을 사용해 대각선의 빛을 배경천 위로 쏜다.
3. 배경 천에 흐르는 빛 속에 먼지가 보이도록 천장에서 천과 실을 털어 먼지를 만들어 사진을 찍는다.
4. 60x60(cm) 크기로 디지털프린트 한다.

b. 감각놀이

1. 흰 천을 벽에 고정시켜 배경을 설치한다.
2. 실을 사용해 실뜨기를 하는 손동작을 취하여 사진을 찍는다.
3. 60x60(cm) 크기로 디지털프린트 한다.

c. 1995-2016

1. 흰 천을 벽에 고정시켜 배경을 설치한다.
2. 실 뭉치를 양손에 쥐고, 감고 풀어내는 행위를 하며 사진을 찍는다.
3. 60x60(cm) 크기로 디지털프린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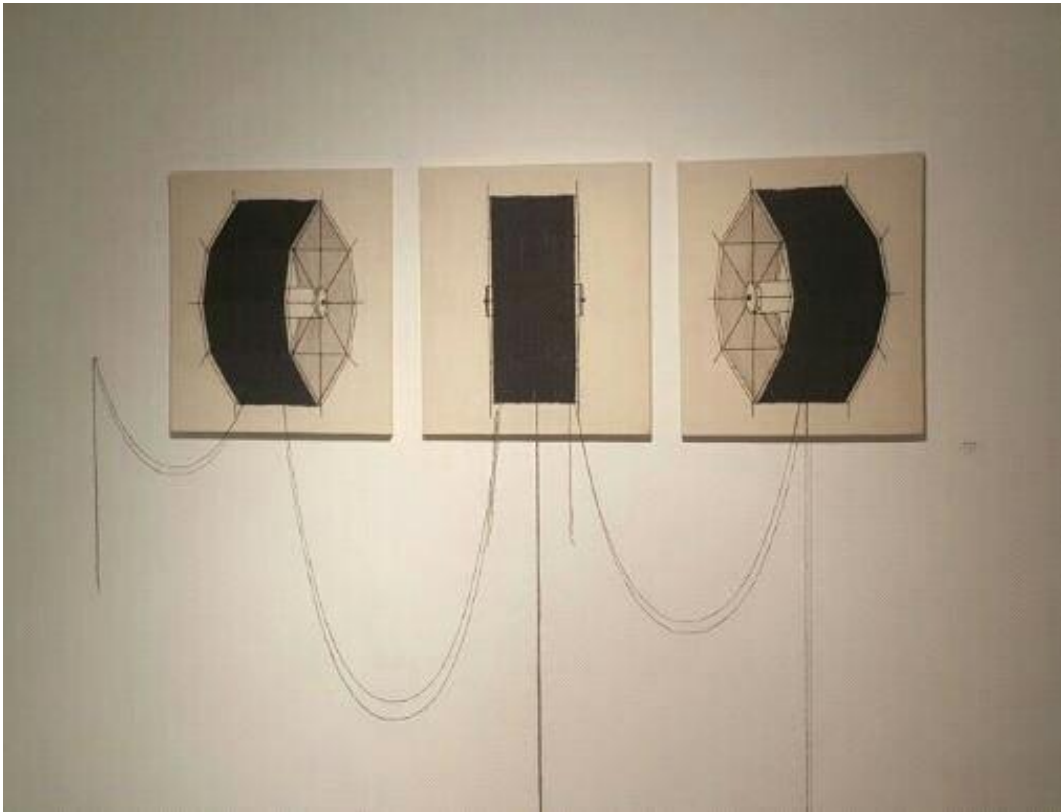
d. 답다

1. 흰 천을 벽에 고정시켜 배경을 설치한다.

2. 천 위로 바느질 하는 손의 모습을 사진 찍는다.
3. 60x60(cm) 크기로 디지털프린트 한다.

## 작품설명

사진으로 표현된 위 작품들은 본인이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제작 동기와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한 작품들이다. 기억의 한 장면 또는 행위의 기록을 재연하여 사진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작가의 경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작품 1】 <a. 계산동 936-6>은 실제 본인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실공장의 주소이다. 이 곳의 유일한 통로는 어둡고 좁은 지하 계단이었고, 부모님을 보기 위해선 지하 깊숙이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계단을 내려 갈 때면 늘 문 밖의 햇살들이 출입구에서부터 먼지가 자욱하게 끼있는 눅눅한 지하공간까지 비취 주었고, 나는 쉽 없이 돌아가는 물레소리가 들리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b. 감각놀이>는 실공장에서 하루의 시간을 오롯이 보내야했던 나에게 실뜨기라는 놀이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상황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처음 실을 놀이로서 접하며 시간을 보냈던 유년시절의 촉감의 기억을 실뜨기라는 놀이의 행위로 재연해 보았다. <c. 1995-2016>는 유년시절 놀이를 통한 실에 대한 기억을 가졌던 때부터 현재 실을 만지고 느끼는 감성의 연결선을 실을 통해 감고 풀어내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표현 한 작품이다. 사진의 마지막에 나열 된 <d. 담다>는 앞서 보여준 작품의 배경들과 실에 대한 감각의 기억들이 모여 현재 작업을 하는 나에게 새로운 감각과 감성들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쌓여진 감성과 감각들을 실을 사용해 작품에 담아내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연출해 보았다.



【작품 2】 물레

## 【작품 2】 물레

연도 : 2016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캔버스에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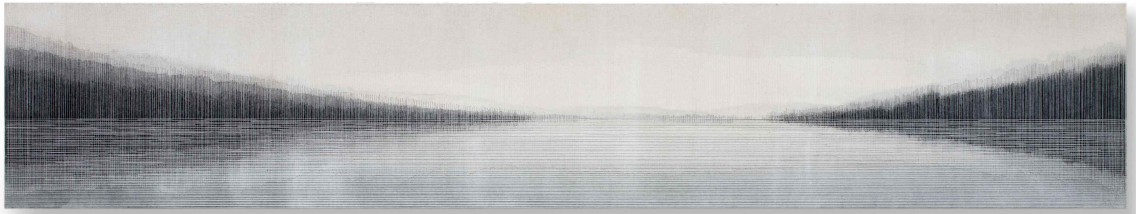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캔버스 약구에 린넨천을 씌워 고정한다.
2. 검은색 밀실을 사용하여 물레의 형태를 스케치 한다.
3. 두꺼운 실과 얇은 실로 바느질하여 물레에 돌아가는 실을 표현한다.
4. 물레에서 풀어져 나온 실들을 공간에 맞게 뽑아내어 바느질 한다.

### 작품설명

본 작품은 유년시절 실공장을 운영하셨던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서서 실을 감고 풀어냈던 물레의 모습이다. 가운데 엄마를 중심으로 왼쪽엔 아빠 오른쪽엔 막내이모가 있었다. 이종사촌들과 우리 자매는 늘 부모님의 얼굴보단, 무던히 일만 하시던 뒷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실 한통이 물레 위로 촘촘이 쌓이다가 한 통이 다 감겨지면 또 다시 새로운 실 통의 실 끝과 매듭지어져 감겨졌다. 그렇게 끈임 없이 돌아가던 물레는 부모님 손에서 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감겨지고 나서야 멈춰졌고 나는 비로소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그때는 저 물레가 더 이상 돌아가지 말았으면 했지만, 또 저 실을 가지고 놀며

짙은 그때의 추억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늘 그립고 즐거운 이야깃거리이다. 이렇게 소리와, 이미지, 촉감으로 기억되는 어린 시절 물레에 감긴 실에 관한 감각의 형태를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 작품에 담아 보았다.



【작품 3】 시선의 기록

### 【작품 3】 시선의 기록

연도 : 2016

크기 : 160 x 30(cm)

재료 : 캔버스에 바느질 및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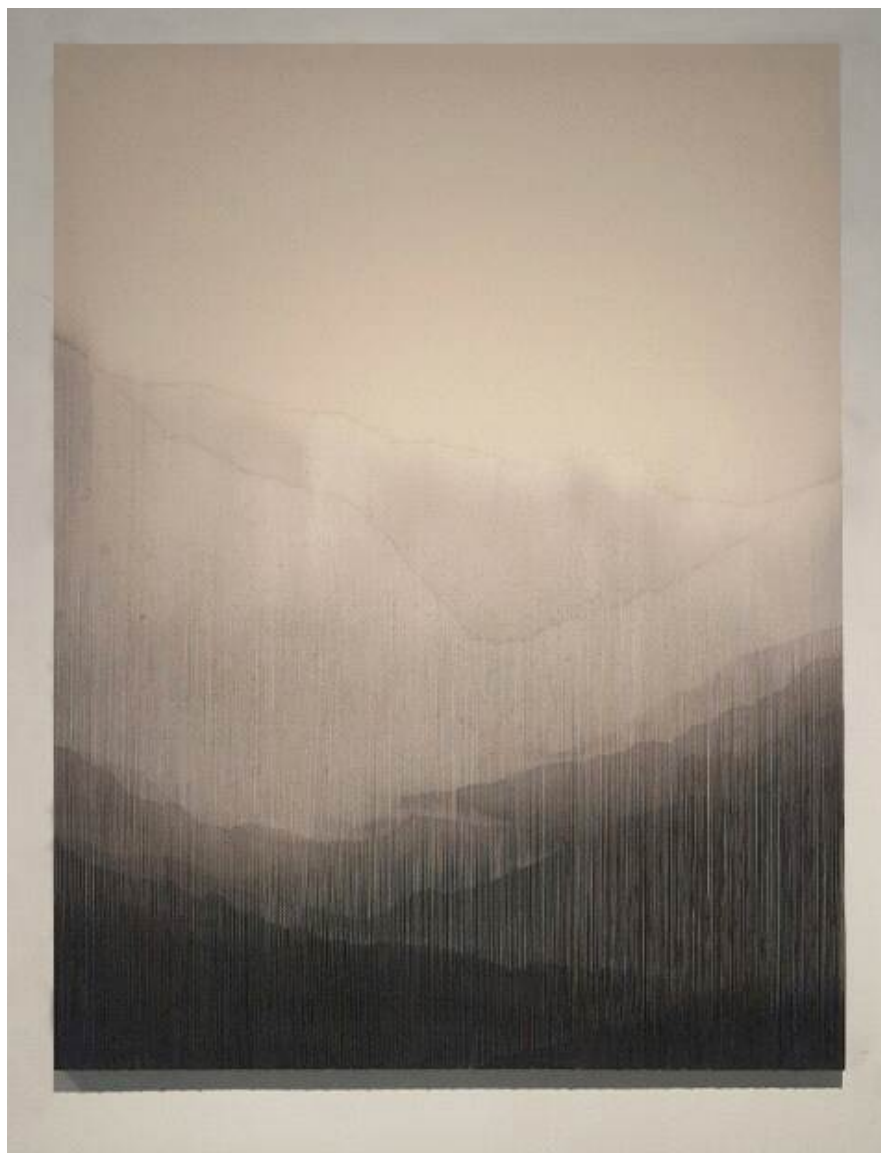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캔버스에 무채색 아크릴을 사용해 산수의 밑 색을 채색한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2. 무채색 실을 사용하여 명도가 낮은 순으로 실을 사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수풀과 그림자를 바느질 한다.
3. 중첩 된 수풀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명도를 높여가며 실을 중첩시켜 바느질 한다.
4. 수직방향의 바느질을 마무리 한 후 흰색 실을 사용해 수평방향의 물의 흐름을 바느질 하여 완성한다.

#### 작품설명

화천의 광덕산을 둘러싼 길을 따라 가다보면 북한강으로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날씨는 흐렸지만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과, 그 날의 분위기가 좋아 잠시 머문 그 곳은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 작은 물길이었다. 수직으로 펼쳐진 자연의 하늘과 수변으로 자라난 풀들은 수평으로 흘

러가는 물살 위로 비취지며 나에게 새롭고 안정된 감각의 형태로 발견되었다. 원거리에서 바라본 산수의 모습은 수평과 수직이 겹치면서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안정된 원근감을 만들어 냈고, 이것은 마치 유년시절 부모님께서 실타래를 가지고 가지런히 나열된 물레에 실을 겹겹이 감아냈던 실의 선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편안한 감성을 떠오르게 하였다.



【작품 4】間

## 【작품 4】 間

연도 : 2016

크기 : 116 x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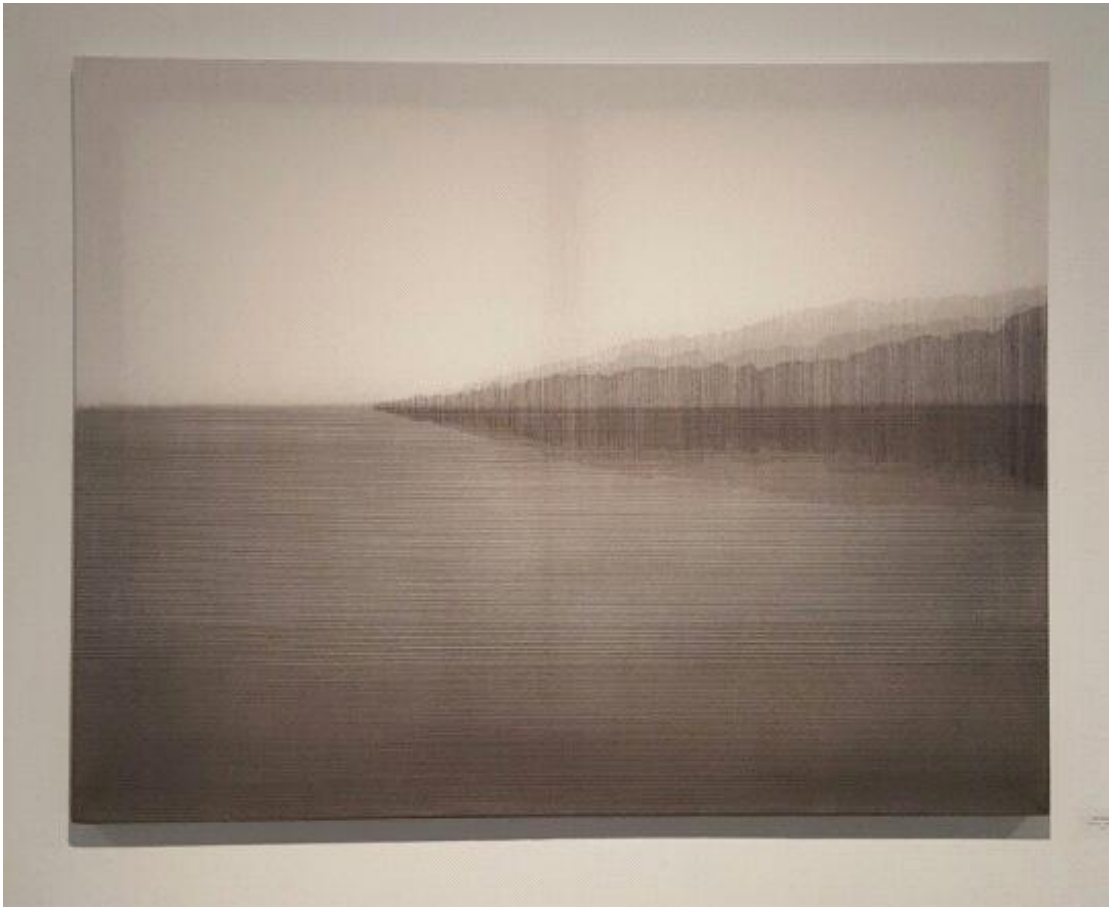
재료 : 캔버스에 바느질 및 아크릴 채색

### 제작방법

1. 캔버스 약구 위에 미색의 린넨 천을 씌워 고정한다.
2. 무채색 아크릴을 사용해 산세의 밑 색을 채색한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3. 무채색 실을 사용하여 명도가 낮은 순으로 실을 선택하여 수직방향의 바느질로 산세를 표현 한다.
4. 중첩 된 산세를 표현하기 위하여 명도를 조절해가며 바느질을 반복한다.
5. 흰색 실을 사용하여 산세 사이로 흐르는 산안개를 바느질하여 완성한다.

### 작품설명

2013년 8월,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대관령고갯길 넘는 적이 있다. 아침 산 안개가 거치지도 않은 대관령의 광활한 산세는 나를 그 곳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했다. 눈에 거슬림 하나 없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몸과 정신으로 느꼈던 감각(시각, 청각, 후각, 촉각)들은, 과거 먼지가 뿌얏게 내려앉은 실공장 한 칸에서 유년시절 시간을 보내며 느꼈던 감각들을 연상시키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각의 기억이 확장 되었다.



【작품 5】 고요히 피어오르던

## 【작품 5】 고요히 피어오르던

연도 : 2016

크기 : 120 x 90(cm)

재료 : 캔버스에 바느질 및 아크릴 채색

### 제작방법

1. 캔버스 약구 위에 흰색 린넨 천을 씌워 고정한다.
2. 무채색 아크릴을 사용해 그림의 밑 색을 채색한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3. 무채색 실을 사용하여 명도가 낮은 순으로 실을 선택하여 수직방향의 바느질로 산과 그림자를 표현 한다.
4. 수직의 바느질 선 위로 수평의 선을 바느질하여 흐르는 강물을 표현하여 완성한다.

### 작품설명

이 작품 또한 자연에서 느꼈던 감각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만든 작업이다. 풍경의 모습이 뚜렷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에 느꼈던 감각의 영역들은 아름답게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다. 초가을쯤 양평의 '두물머리' 라는 곳에 간적이 있었다. 해 질 무렵, 강 위로 물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그 공간 안에서 신체로 느껴지는 감각들은 무척이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사물이 아닌 공간과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안정된 감각들은 그 곳을 바라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나만의 감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멋스러운 감각의 공간이었다.



【작품 6】 검은 바다

## 【작품 6】 검은바다

연도 : 2016

크기 : 160 x120(cm)

재료 : 캔버스에 바느질 및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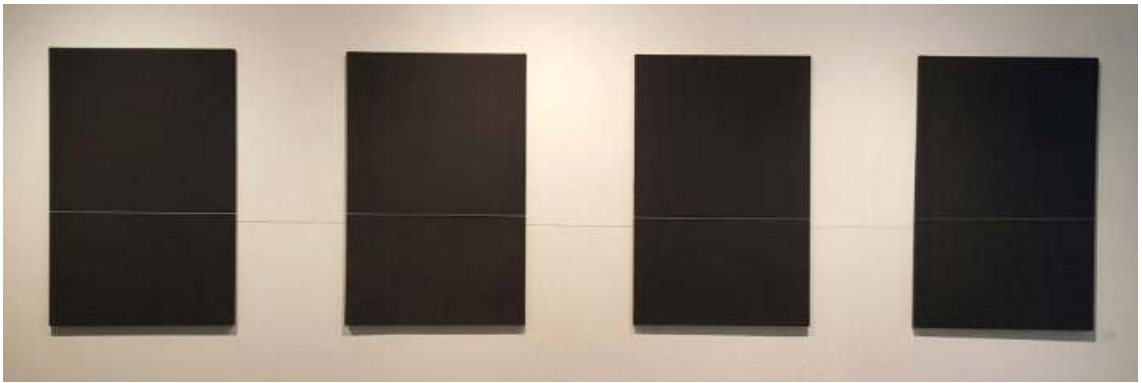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캔버스 약구 위에 흰색 린넨 천을 씌운다.
2. 검은색 아크릴물감을 열게 사용하여 전체적인 밑 색을 반복적으로 채색 한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3. 수면 위의 물결을 아크릴물감으로 묘사하여 채색한다.
4. 수평선 위의 부분을 흰색 실을 사용하여 수직방향의 바느질 한 후 완성한다.

### 작품설명

앞서 설명 된 작품들처럼 본인이 작업을 함에 있어 자연을 좋아하고 스스로 찾게 되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자연을 찾고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산세를 내려다보거나 수평선을 바라 볼 때면 스스로 너무나 편안한 심상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은 두 눈을 피로하게 했고, 피부로 자연을 느끼기에 오랜 시간 나를 그

곳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빛이 내는 자연의 색 보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 바람, 소리, 냄새가 좋아 자연을 찾기에 주로 흐린 날 또는 밤에 자연을 찾는다. 본 작업 또한 어둠이 내려앉은 평온했던 밤바다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제작 하였다. 어느 하나 눈에 거슬림 없는 검은 바다 위에 뜬 희미한 달빛은 하늘과 수면을 흐릿하게 구분 지으며 나에게 고요한 심상을 만들어 냈다.



【작품 7】 빛, 공간 그리고 시선

## 【작품 7】 빛, 공간 그리고 시선

연도 : 2016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캔버스 와구, 린넨 천, 아크릴, 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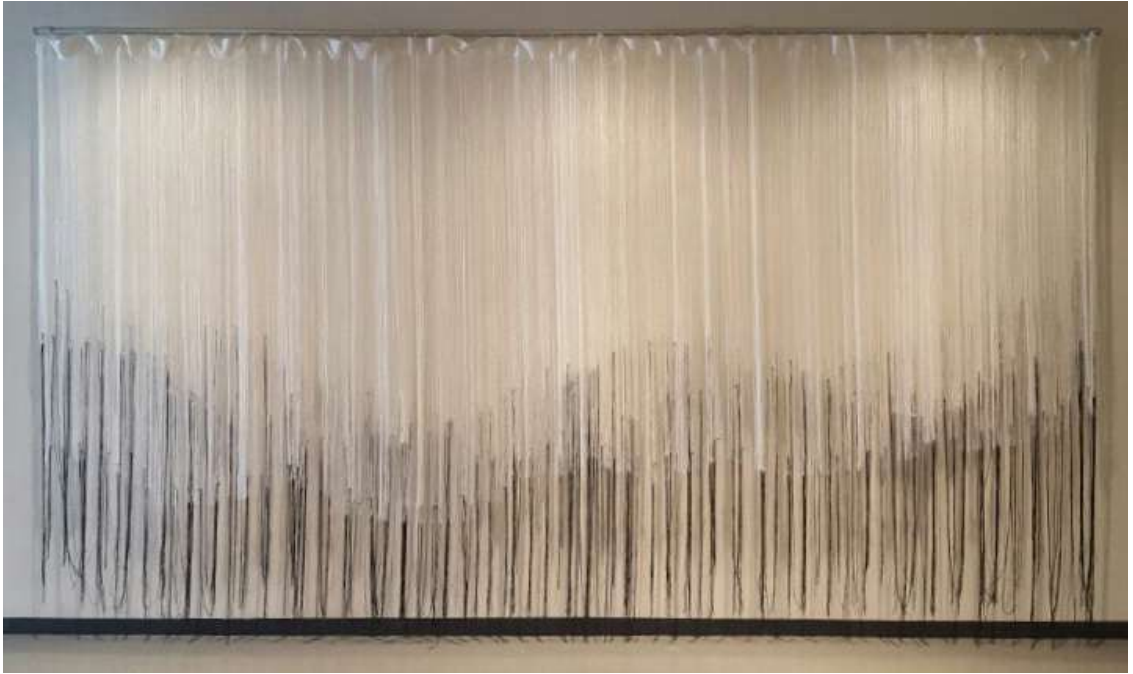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4개의 캔버스 와구 위에 흰색 린넨 천을 씌워 고정한다.
2. 검은 아크릴물감의 색 농도를 낮춰 천 위에 채색하고 고온에서 건조 시킨다.
3. 완전한 검은색의 천으로 물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채색 및 건조한다.
4. 검게 물든 4개의 캔버스위로 흰색 면사를 가로질러 양끝의 캔버스에 바느질 하여 완성 한다.

### 작품설명

본인의 작품들은 주로 무채색으로 표현 된 산수화이다. 스스로 자연을 찾고 그 감각과 감정들을 만들어냄에 있어 작가의 시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빛과 어둠은 색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공간을 구분 짓기도 한다, 그 중 본인은 어둠과 빛이 만들어낸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연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였고, 그 공간 안에서는 색보단 선을 바라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 된 감정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시선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후에야 그곳에 머물러 또 다른 감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본 작품 또한 어둠과 빛이 만든 최소한의 공간위로 선을 흐르게 하여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감각과 감정들을 하나의 선을 통해 관객과 사유하고자 하였다.



【작품 8】 촉각 놀이

## 【작품 8】 촉각놀이

연도 : 2016

크기 : 420 x 280 x 15 (cm)

재료 : 실 커튼, 염색 실

### 제작방법

1. 3단 커튼레일과 고정용 브라켓을 벽에 설치한다.
2. 흰색 실 커튼을 3단으로 매달아 가위로 산세의 형상을 재단 한다.
3. 실 커튼 옆에 3단계의 명도로 염색 된 무채색실과 가위를 놓는다.
4. 관객들이 선택한 무채색의 실을 재단 된 실 커튼 끝에 매듭짓는다.
4. 관객들에 의해 매듭지어진 실은 원근감이 느껴지는 산세의 자연풍경으로 완성된다.

### 작품설명

과거 놀이를 통해 촉감을 익혔던 실에 대한 감각의 기억은 아직까지 실을 만지며 작업을 하는 본인에게 손으로 하는 하나의 놀이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 큼 실을 통한 감각의 기억들은 시각적, 촉각적 뿐만 아니라 유년시절의 편안했던 환각까지도 만들어 낸다. 또한 실이란 오브제를 가지고 놀이형태의 구성을 설치하여 작가가 경험한 감각들을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 Ⅲ. 결 론

본 연구는 신체를 통해 경험한 외적감각과 본인의 기억을 통해 축적된 심리적인 내적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감각의 형태가 어떻게 본인의 정서를 만들어 냈고, 작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결과이다.

삭막한 도시공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본인의 불안정한 정서를 어떠한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머물며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힐데브란트의 시각론과 조지 버클리, 헤겔이 주장한 시각과 촉각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작품표현에 있어 과거 실을 통해 경험했던 익숙하고 안정된 내적감각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한 자연에서의 외적감각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 바느질이라는 작품의 주된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둡고 흐릿한 무채색의 경험이 만들어낸 안정된 정서가 안개가 끼거나 해가 진 자연풍경의 공감각적 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술하였다. 놀이형태를 통해 관객참여를 유도한 설치작품은 전시장에서 작품을 그저 바라만 봤던 관객들이 관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작가의 감각경험을 신체와 정신으로 체험하며 작품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앞으로 감정과 감각을 작업에 담아내는 과정에 있어 본인의 내면과 정서를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 작업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의 작품을 통해 감각의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유범희,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더 숲, 2016,

### 《논문》

- 서보람, 『질 들뢰즈의 감각론을 통한 촉지적 공간의 감성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유혜영, 『색채의 공감각의 의한 색채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12.
- 이정희, 『놀이, 참여, 소통으로서 설치미술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7

### 《홈페이지 및 기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ABSTRACT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landscape expression through the  
sensuous experience of threads

– Focusing on the author's works –

Kim, So young

Department of Public Art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way that the external sense such as the touch or image of the thread the researcher played with during his childhood and the internal senses such as the stable emotion and atmosphere obtained through the thread made a new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ynesthesia as interlocking with each other in the space called nature the researcher was facing now.

When the weather, smell, sound, and atmosphere the researcher felt through the past experience are similar to the current environment, the senses experienced in the past are associated. At the same time, they are restructured into a new form of sense combined with the sense that is experienced now. It means the memories of sense accumulated from the experience combine with the current senses to be restructured into a new form of sense.

Hereby, the researcher described how the past senses and the associated images with these senses perceived an object called nature and expressed into a work based on the new forms of sense which were made by combining these past senses with current senses.

This thesis was composed as follows based on the works the artist made during the master's course from 2015 to 2016.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author's works were suggested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n the body of chapter 2, first, the definition of the sense was described concretely and the work formation background was revealed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l sense through the external sense. Also, the cause and background for obtaining the psychological stability in the nature landscape were described on the basis of the sight theory by Hildebrand and several philosophers' studies. Second, in the work expression way, it was represented how the synesthetic image through the sewing and achromatic color used as a means for recording the sensory memory was expressed in the work, and it was concretely described how the work communicated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installation works of the play pattern.

Finally, the author's 8 works were described individually.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overall contents of this study were organized, and the directivity of the author's works and the plans to attempt newly were suggested.